



# '93 SEOUL PACK과

## 서울팩, 91년보다 규모 작아 장기적 경기불황 영향탕

'93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SEOUL PACK '93)이 KOTRA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공동주관하에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KOEX별관에서 세계 13개국 100여개사(국내 64개사, 해외 36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포장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은 1985년 이래 국내외 포장관련제품의 비교전시회를 통해 국내 포장기술의 향상, 포

장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포장설비 자동화를 통해 물류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격년제로 개최되어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영화학공업, 서통, 울촌, 대현코포레이션, 두산기계, 성안기계, 한국포장기계, 한국전자공업사 등 국내 유명포장 업체의 참가는 물론 New-long Machine Works사, Finnboard사, Liaoning Mitsuwa Machinery사 등 해외 유명업체도 두루 참가해 포장자재 및 용기분야, 포장기계 및 부품분야, 포장재 가공기기분야, 물류관련기자재분야, 포장디자

인·서적·식품관련분야와 기타 관련기기에 분야에 걸쳐 최신제품을 전시, 국내외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전개했다.

참관인수를 헤아려 보면 해외 2백여명 국내 2만여명이 참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기간동안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보면 상담과 계약에 있어서 전체금액은 91년에 비해 모두 줄었으나 수출상담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관인원에 비해 실질적인 거래 규모가 작았던 이유는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SEOUL PACK현황

구분	KOR PACK '85	KOR PACK '87	SEOUL PACK '89	SEOUL PACK '91	SEOUL PACK '93
전시기간	'85. 6. 11~6. 16	'87. 4. 7~4. 12	'89. 4. 27~5. 1	'91 4. 23~4. 27	'93. 4. 9~4. 13
전시장소	KOEX	KOEX	KOEX	KOEX	KOEX
주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면적(S/M)	3,744(1,708)	3,744(1,708)	5,184(2,650)	7,776(3,492)	7,488(3,370)
전시참가업체	92	89	118	133	100
해외참가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태국, 대만	미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일본, 태국, 대만, 핀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일본, 홍콩	독일, 대만,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싱가폴, 영국, 이태리, 일본	미국,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일본, 중국, 영국, 대만
해외참관객	400명(21)	514(30)	594(46)	146(33)	219
국내참관객	36,968	39,911	25,578	20,840	21,353
거래량 US\$ 1,000	6,196	13,400	58,530	146,860	55,972

# JSP 전시비교

## JSP, 특수인쇄분야 전시회 자동화 · 성력화기기 선봬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많은 업체가 참여해 국제포장기자재전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향후 보다 더 많은 포장인들의 관심과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전성 있는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포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국내에서 서울팩이 열리는 시기와 같이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는 JSP '93이 개최되었다.

JSP전은 1981년 3월에 제1회 개최되어 실, 그라비아, 스크린 인쇄 등 이른바 특수인쇄분야 전시회의 독자성을 강력히 선언한 이후 85년에 2회, 89년에 3회를 하면서 올해 제4회를 맞이했다.

이번에 열린 JSP는 전일본실인쇄협동조합연합회, 전국그라비아협동조합연합회, 전일본스크린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3단체가 주최하여 '특수인쇄로 여유와 풍족함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렸다.

지난 전시회에서는 100여개사가 480부스공간을 차지해 출품사별로 비교경쟁되었고, 올해 출품사는 150개사로 약간 증가했으나 전시면적은 594부스로 대폭 증가했다.

실 라벨 인쇄기와 관련주변기기 및

자재, 스크린인쇄기재, 홀로그래피 관련장치, 박압기재, 건조장치, 멸균장치, 노광기(露光機), 제판기재, 각종 검사장치, 계수기계, 잉크젯프린터, 금속인쇄기재, Flexo인쇄기재 등의 특수 인쇄제품이 출품되었으며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벨인쇄로는 미국 마켄사가 출품한 획기적인 인쇄시스템으로 컴퓨터로 디자인한 디지털 정보를 즉시 프린팅시스템에 보내 열전사 방식으로 다색인쇄하는 것이다.

▲라벨사이즈에 따라서 판실린더를 교환할 필요가 없는 세미로터리 타입의 인쇄기도 이번에 최초 공개되었으며, 한 개(직경 100mm)의 실린더로 최대 245mm까지의 라벨인쇄가 가능하다.

▲그라비아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인쇄실린더, 원판의 보관관리시스템이 비디오로 공개되었는데, 자동창고를 조합하여 대폭적으로 보관공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 외의 생산관리까지 가능하다.

그외 Flexo판 자동점입장치, 수현상(水現像)시스템, 필름리스 그라비아제판시스템, 기타 성력화기기 등 특수인쇄관계의 최신 기기가 다수 출품되어 볼 거리가 많은 전시회가 되었다.

포장에 있어서 실, 라벨, 스크린, 그라비아, Flexo 등의 특수인쇄는 필요 불가결의 분야로 유저측에서도 주목도가 높아 각 분야에서 불황하에서도 관심있게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실라벨 분야에서 다층라벨이 소개돼 라벨링 시스템이 호조를 타나냈다. 특히 라벨링더, 라벨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라비아 인쇄 분야에서는 인쇄기는 물론 주변의 성인(省人), 성력화(省力化)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플렉소 인쇄 분야에서는 환경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

이번 JSP '93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 요구되는 성력화, 성인화를 위한 기술, 기재, 기계, 시스템이 다수 출품되었으며 여유와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 우수한 인쇄물, 그리고 창조성, 기획력, 부가가치의 증대, 편리성, 판매촉진 등을 공감할 수 있는 인쇄기술 등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